

대한민국 국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2024년 7월 11일

존경하는 제 22 대 국회의원 여러분께,

Climate Group은 22 대 국회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넷제로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주시길 것을 긴급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 22 대 국회의원에게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총선은 한국의 미래를 규정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국회의 역할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정치색과 관계없이 저희 모두는 환경을 보호하고 후손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해야 하는 핵심 이해관계자입니다. 넷제로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약속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와 사회 부문에 걸친 집단 행동이 필요합니다.

넷제로 달성은 확실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탈탄소화 기회에 투자함으로써, 한국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완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필요한 힘을 더할 뿐만 아니라 수출을 증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목표 달성을 위해 저희는 제 22 대 국회의 모든 의원께서 넷제로 전환을 우선시하고, 한국을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게 할 야심찬 제도 제정을 위해 협력해 주시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

세계적인 기업 400 여 개 이상이 RE100 회원사로, 해당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국제 수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RE100 회원사들은 **프랑스의 연간 전력 소비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매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에 본사를 둔 회원사는 35 개 이상이며, 160 개 넘는 글로벌 회원사가 한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수요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절한 시장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최근 **2023 RE100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RE100 회원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데에 있어 다양한 장벽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높은 비용, 제한적인 공급, 조달 옵션의 부족이 가장 큰 장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는 RE100 회원사들은 총 전력소비량의 9%만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50%, 일본 25%, 베트남 24% 등 아태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전력망 내 전력의 7.4%만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됩니다. 2030년까지 한국의 재생전력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기업 수요는 157.5TWh 에서 172.3TWh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예상 공급량은 97.8TWh로 예상 수요의 56-62%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RE100 한국형 정책 제언은 RE100 회원사들이 재생전력 100% 사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2대 국회에 해당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막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정부 수준에서의 다층협력

나아가 저희는 한국 정부가 Coalition for High Ambition Multilevel Partnerships for Climate Action (CHAMP)를 지지한 점에 사의를 표합니다. 이는 다층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리더십의 고무적인 예시가 될 것입니다.

해당 약속 이행을 위해서는 기후 전략의 기획, 자금 조달, 실행 및 모니터링에 지방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s), 국가적응계획 (NAPs),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NBSAPs),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LT-LEDS)등이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다층적 행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녹색 철강을 활용한 넷제로 달성

한국은 또한 철강 제조 및 기타 부문에서 속도와 규모로 혁신을 이룬 자부심을 갖춘 국가로, 철강 탈탄소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하는 한국의 철강 산업은 국가의 인프라, 고용 시장 및 주요 수출을 뒷받침합니다. 한국 수출품의 약 60%가 전기 기계, 차량, 컴퓨터, 선박을 포함한 철강 또는 철강 함유 제품입니다.

국회에서는 한국 철강 제조와 구매 단계의 탈탄소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연된 행동에서 비롯되는 지역 경제 손실을 완화하며, 한국이 청정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의

수소 사회를 위한 여러 정책 지원과 탈탄소화를 위한 녹색 수소의 필수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에도 분명 행동은 필요합니다.

또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같은 무역 규제도 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탈탄소화에 실패하면 44억 달러 규모의 한국의 대 EU 철강 수출 시장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저탄소 철강 생산 및 조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은 견고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기후 관련 위험과 규제 압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동시에 신형 녹색 철강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이 유례없는 녹색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녹색 공공 조달,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등 시장 활성화 요소를 동원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급한 집단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Climate Group은 대한민국 제 22대 국회가 본 서한에 명시된 문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저희는 기후 행동의 진전을 위해 정부 및 기업과 성공적으로 협력해왔으며 국회의 활약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Climate Group에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기회를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헬렌 클락슨 (Helen Clarkson) 드림
CEO, Climate Group